



## [미국] 소셜 네트워크 사용시간 증가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대략 600만 명의 사람들이 페이스북(Facebook)을 탈퇴하였다고 한다. 반면 미국의 디지털 시장 조사업체인 comScore에 따르면 현재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는 이래 없는 유행이라고 하였다. 웹 분석 회사들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당시 사람들이 12분에 1분격으로 온라인을 이용한 반면 현재는 6분에 1분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하며 5년 전과 비교해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머무르는 시간이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페이스북의 성공이 직접적인 이유로, 현재 페이스북은 미국에서 4번째로 사이트 사용자수가 많으며 매달 미국의 총 인터넷사용자의 73%가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comScore는 미국의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한 달간 사용시간이 4.6시간에서 6.3시간으로 늘어났다고 전하며 현실적으로 더 이상 미국의 페이스북 이용자수 증가에 기대를 걸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중요해지는 부분은 '사용자들이 얼마나 페이스북을 오래 사용하는냐' 라고 전했다. 다른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들의 인기도 계속 늘고 있는데, LinkedIn의 경우 12개월 동안 미국 이용자 수 부분에서 7위에 올랐고 5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트위터의 경우도 27만 명의 방문자수를 5월 한달 동안 기록하였고, 13%의 사용자수 증가를 이뤘다고 전했다.



## [필리핀] 코카콜라의 친환경 빌보드



<출처: ADWEEK.COM>

코카콜라와 세계야생동식물기금 단체가 필리핀에 녹색 식물로 뒤덮인 60 x 60 크기의 빌보드를 세우고 공기오염 정화에 나섰다. 이 빌보드에 심어져 있는 식물들은 일년에 약 13 파운드의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이 빌보드는 주변

의 대략 46,800파운드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공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식물들이 심어진 화분은 코카콜라 재활용병으로 만들어졌으며, 비료도 유기농을 사용하는 등 빌보드 제작에 사용된 재료들은 모두 친환경자재라고 전했다. 코카콜라 필리핀의 사장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식물 빌보드를 만들게 되어 기쁘고 이 빌보드는 우리가 내세운 회사방침인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통해 긍정적으로 세상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 라고 말했다.



## [미국] 구글의 새로운 SNS: Google+

구글은 최근 페이스북에 맞서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인 Google+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Google+는 페이스북을 본떠 만들었다며 비난을 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Google+만이 가진 매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구글의 엔지니어링 담당 수석 부사장 군도트라는 "온라인상에서는 실제 생활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미묘함을 잃어버렸다. 구글은 이상하게 되어버린 온라인상의 공유방식을 고치는 것이 목표" 라고 하였다. 구글은 수많은 페이스북 유저들이 불만을 토로하던 '과다한 개인정보 유출' 부분을 보완해 많은 유저들에게 어필하려 하고 있다. 특히, Google+와 페이스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친구 카테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사, 부모, 직장동료 등 그룹별로 서클을 만들어 이를 통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에 군도트라 부사장은 "사람 사이의 관계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현재의 온라인 서비스는 친구와의 관계를 패스트푸드처럼 만들어 버렸다. 모든 사람들을 친구라는 한 페이지에 묶어두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Google+를 통해 실제 생활에서의 관계가 온라인 상에서도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소셜 네트워킹에서 독보적인 존재인 페이스북의 사용자들을 끌어오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구글측은 "사람들은 한가지 도구만을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 하지만 다른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